

해양수산부 신청사, 부산시 동구의 북항 1단계 재개발 부지에 짓는다

- 전문가 심사위원회를 통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최적 입지 선정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8월 6일(목), 신청사 건립을 위한 최종 부지로 부산시 동구청이 제안한 북항 1단계 재개발 부지가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신청사 부지 선정을 위해 지난 7월 29일부터 31일까지 사흘 동안 부산시 각 기초 지방정부로부터 제안서를 접수 받았으며, 강서구, 남구, 동구, 중구 4개 기초 지방정부가 참여하였다.

8월 5일(수) 참여 지방정부의 제안 설명과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부지 선정 심사위원회*’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거쳐 부산시 동구 북항 1단계 재개발 부지가 최종 선정되었다. 부지 확보 용이성과 타 기관과의 집적 가능성, 교통접근성 등 전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 도시·교통 및 해양수산단체, 학계, 시민단체, 직원대표 등 10명으로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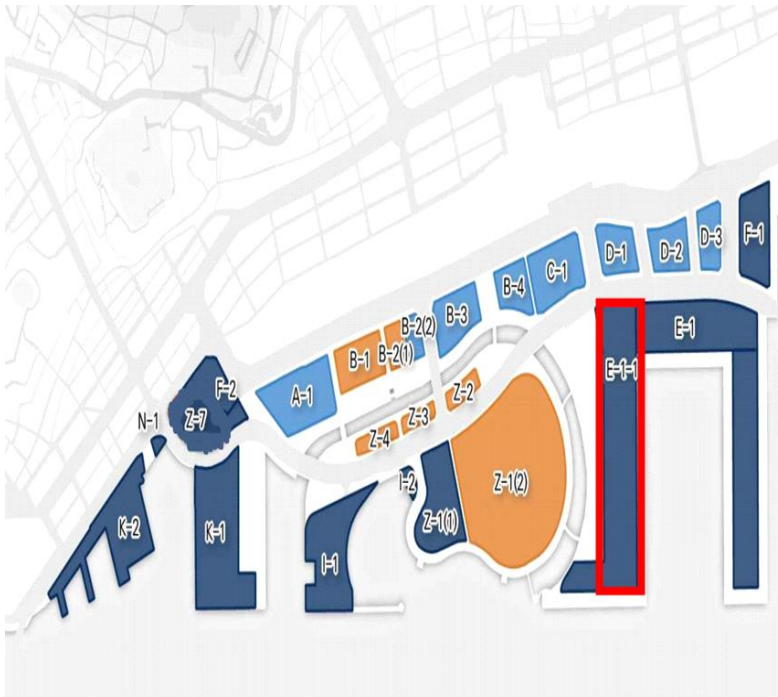
해양수산부는 부지 선정이 최종적으로 마무리됨에 따라 올해 안에 시설 규모를 확정하고 2030년까지 신청사 건립을 완료하기 위한 본격 절차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해양수산부 신청사 부지 선정 과정에서 보여주신 부산 시민과 기초 지방정부의 관심에 감사드린다”며, “북극항로 시대를 선도할 남부 해양 수도권의 핵심 거점 부지가 정해진 만큼, 향후 차질 없이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담당 부서	운영지원과	책임자	과 장	황성오 (051-773-5050)
		담당자	서기관	오성철 (051-773-6600)

참 고

해양수산부 신청사 선정 부지 개요

선정 부지		위치도
위치	북항 1단계 재개발 부지 해양클러스터 E-1-1 (동구 초량동 1270번지)	
면적 (연면적)	72,456.7㎡ (434,740.2㎡)	
소유자	사유지 100% (부산항만공사 소유, 국가귀속 가능)	
현 상태	부산국제여객터미널 주차장	